

고속철도 평택 오송 이복선 구간 선로용량 평가

박범환[†], 김경민^{*}, 오석문^{**}

초 록 고속철도 네트워크의 병목 구간인 평택 오송 구간의 선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해, 복복선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,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, 수원발, 인천발 KTX 등, 보다 다양한 시종착 및 정차 패턴의 열차가 운행할 예정이다. 그러나 야마기시 방식의 선로용량 계산방법으로는 다양한 패턴을 갖는 열차들 간의 시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로용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힘들다. 본 연구에서는 스케줄 압축에 기초한 UIC 406 방법을 적용하여 평택 오송 이복선 구간의 선로용량을 평가해보고자 한다.

후기. 2025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.

† 교신저자: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경영·물류학과(bhpark@ut.ac.kr)

* :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(kmkim@mju.ac.kr)

** :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물류체계연구실(smoh@krrri.re.kr)